

## 13억의 마음을 담은 '도서빌딩'

중국 최고의 대형 국영서점

차태근 | 북경사범대 박사과정

중국의 대형 국영서점으로 지난해 5월 8일 문을 연 '도서빌딩'은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총 10만여종의 책을 진열한 중국 최고의 서점이다. 교통이 편리한 쇼핑센터의 중심에 위치해 독자들이 점차 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도서판매로 매출실적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北京) 중심가 가운데 하나인 시판(西單)의 시골벽적인 쇼핑거리가 끝나는 남동쪽 어귀, 갑자기 한적한 가운데 사람들이 심심찮게 찾아드는 곳이 있다. 바로 지난해 5월 8일에 문을 연 도서빌딩(圖書大廈)이다. 지하 3층에 지상 8층, 건평면적 5만여 평방미터. 전문적으로 책을 판매하기 위한 단일서점으로서 중국에서 최고다.

### 중심가에 자리잡은 종합서점으로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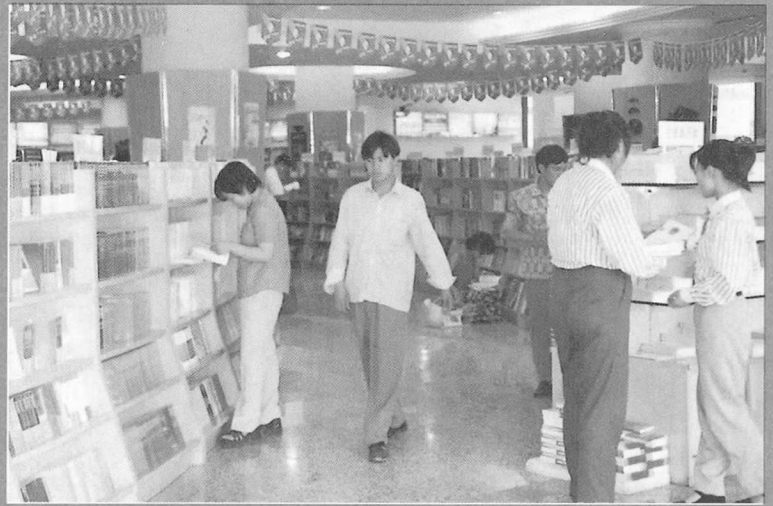
중국 민항건물 바로 옆, 시장안지에(西長安街)를 향해 서 있는 도서빌딩은 중국의 최대 국영서점인 북경의 신화(新華)서점을 주축으로 외문(外文)서점과 중국서점이 공동출자하여 세운 대형 국영(國營)서점이다. 전국의 500여개 출판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하 3층과 지상 8층 중 지상 1에서 4층까지 10만여종의 도서를 진열하고 있다. 1층은 주로 정치·경제·역사·철학 등 사회과학류의 도서를 중심으로 3만여종의 도서를 진열했고, 2층은 아동도서와 외국어 관련 서적들, 3층은 문학, 예술관련 서적과 2만여종의 음악, 영화 CD와 테이프가 전시돼 있다. 4층에는 주로 자연과학, 의학에 관련된 서적 3만여종이 빼곡하며, 인터넷 카페가 자리했다(사용료는 시간당 런민뻬 30원인데 비싼 편이다). 지하는 카페와 식당 등 휴식공간으로 꾸밀 계획인데, 아직

개장하지 않았다.

도서빌딩의 지난해 판매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개점 이후 지금까지 판매액은 런민뻬 약 1억 1천만원 정도. 지난해 8개월 동안 매달 판매액이 런민뻬 1천만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99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소비위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판매고가 늘어나면서 서점관계자들의 표정을 밝게 하고 있다. 올 1/4분기 판매액은 대략 3300만원, 1일 평균 판매액은 36~38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0%증가했다.

도서빌딩이 올해 좋은 실적을 보인 것은 규모나 지리적 잇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다.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도서판매를 시작한 것. 현재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는 대략 2백10만명 정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 '수도전자상점(首都電子商城)'을 개설했는데, 4월 9일까지 한달 동안 런민뻬 8만원(이중 해외판매 4000달러 포함)정도 매출을 올렸다. 이것은 중국의 최대 도서전자판매망인 '상하이 서점(上海書城)'이 40여일 동안 약 1만7000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에 비하면 놀라운 실적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도서빌딩이 지니고 있는 장점은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 한 중심가에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특히 시판 백화점과 싸이더 백화점,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쥘여우 백



종합서점으로서 풍부한 장서를 갖추고 있어 대중적이다.



베이징 중심가의 시골벽적인 쇼핑거리가 끝나는 곳에 중국 최대의 서점 도서빌딩이 위치하고 있다.

화점 등을 중심으로 쇼핑센터를 형성하는 중심가에 위치해, 쇼핑을 하고 나서 가볍게 둘러볼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그리고 이 도서빌딩은 종합서점의 특징을 지녔다는 점에서 대중적이다. 특히 예술분야나 자연과학·사회과학·아동도서·외국어 교재 등은 다른 어느 곳보다 풍부하게 갖춰 독자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서적들을 구입할 수 있다.

### 인터넷으로도 장서 확인

외국의 독자라면 수도전자상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을 통해서 도서빌딩의 장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도서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 독자는 인터넷서점 '수도전자상점'으로 만날 수 있다.

해외화제

## 미국 출판사 10년차 편집직원 연봉 1억원

### 《퍼블리셔스 위클리》 621개사 출판사 급여수준 조사결과

우리보다 출판규모가 훨씬 큰 미국출판계는 급여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출판전문지 《퍼블리셔스 위클리》 6월 5일자에서 621곳의 출판사의 급여수준을 조사한 결과 크게는 스무배 이상 급여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그룹은 연매출 1억달러 이상인 대형출판사의 관리부서 간부들로 평균 연봉은 178,957달러(약 2억1천5백만원)고,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그룹은 연매출 1천만달러에 못미치는 중소형출판사의 영업부 직원들로 평균 연봉은 50,886달러(약 6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연봉수령자는 사장이나 대표이사. 연매출 1억불 이하의 출판사에서는 238,250달러(약 2억8천6백만원)를, 1억불 이상의 출판사에서는 542,500달러(약 6억5천1백만원)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장 적은 연봉수령자는 소형출판사의 편집보조사원으로 20,500달러(약 2천5백만원)로 조사됐다. 성비로 따지면, 남자사원의 평균연봉은 103,695달러(약 1억2천4백만원), 여자사원은 64,642달러(약 7천8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차이는 연봉 수준이 높은 관리부서의 인적비율이 남자가 높는데다 출판사 근무경험이 남자가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각 부서간의 연봉차이를 보면, 미국출판사의 경우 관리부서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년차가 지나지 않은 사원의 경우 평균연봉은 관리부서가 67,059달러, 영업부서가 40,428달러, 편집부서가 32,28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경력자의 경우 각 평균연봉은 관리부서가 132,845달러, 영업부서가 83,185달러, 편집부서가 86,202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응답자 중 45%는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 응답해 연봉수준,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가 다 같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연수 기자

책값 지불방식이 까다로워서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많다. 인터넷을 이용해 구입하려면 먼저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중국의 모란(牧丹)카드나 동방(東方)카드, 또는 공상(工商)은행 북경지점이나 포동(浦東)발전은행 북경지점이 발행한 자유저금통장, 혹은 128-SSL식의 비자카드나 마스터 카드가 있어야 한다.

외형적인 규모에 있어서 세계 최대는 아니더라도 동양 최대가 아니면 성이 차지 않는 중국인들, 그러나 문맹이라는 기나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5만여평방미터의 도서빌딩도 웬지 작아 보이기만 한다. ●

미국 출판계의 연봉 수준

